

민주 주자들 ‘경선 1번지’ 호남을 잡아라

대선일 확정...첫 경선지 공락
文, 호남공약 완료...내주 방문
安 멘토단 오늘까지 순회 일정
李 “호남 집중 지원” 지지호소

정부가 조기 대선 선거일을 오는 5월 9일로 확정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당내 경선이 처음 실시되는 곳이자 야권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광주·전남 공략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전남 팽목항과 울돌목, 광주를 방문한데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중 호남 방문계획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캠프 내에서는 호남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도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를 변동이 컸던 안희정 후보 측은 15일부터 의원 멘토단 지역순회 일정을 시작했다.

첫 방문 지역은 광주와 전남으로, 박영선 의원 멘토단장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 광주와 전남을 오가며 안 지사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영선 의원 등은 이날 전주와 광주대교구에서 김희중 대주교와 무각사 청학주지 스님을 잇따라 만난 데 이어 기자회견을 갖는 등 광주·전남 일대에서 하루에만 9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했다. 16일에는 전북에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문재인 대세론은 더 이상 없다”면서 “본선 경쟁력이 있고, 확실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안희정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이 경제다!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손뼉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서 안희정 지사의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안 후보를 떠난 사람은 찾기 힘들다”면서 문 후보의 리더십을 비난했다. 그는 안 후보의 대연정 발언과 관련해 “적폐청산과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위해서는 대연정이 필요하다”면서 “안 후보의 대연정은 개혁에 동의하는 세력이며,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불복하는 세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주자들 가운데 가장 앞서 광주에 직접 내려와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청산의 위기와 민

주당의 위기, 야권통합의 위기를 강조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해 “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비난하고, 안 후보에 대해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적폐세력인 여권과 권력을 나누는 대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 후보 자문그룹 ‘10년의 힘위원회’ 60명 중, 15명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다”면서 “전운철 위원장, 채동욱 전 총장,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등 문제투성이 인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고 당의 역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 인사들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승희 의원과 함께 1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산 없는 통합 없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남에 대한 공약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호남은 나라의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이라 차별받고, 호남이라서 또 소외되는 이중차별을 받았다”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추천 새도 캐비닛’ 구성,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70년 적폐청산 위원회’(가칭) 구성,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전남대를 방문해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광주 지역 대학생 초청 강연을 개최하는 등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문 캠프 ‘朴 경제 교사’ 김광두 영입

‘삼성 저격수’ 김상조 소장, 김호기 교수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 교사를 지낸 바 있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합류했다.

문 전 대표 측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원장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위원장을, 김 소장이 경제분과 부위원장을, 김 교수가 사회분과 부위원장을 맡는다.

문 전 대표는 이들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논의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끈 보수진영 학자다.

김 원장은 “육먹는 길로 들어서는 것을 잘 알지만, 육 안 먹고 논평만 하는

것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통합과 균형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과를 맡은 김상조 소장은 특히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로 알려졌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와 박영수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호기 교수는 중도·진보 성향으로 사회통합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사회학자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의 정치혁신포럼 대표를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표 측은 “개혁적 보수 경제학자인 김 원장과 재벌개혁의 전도사 김 소장, 중도진보 성향으로 사회통합을 주장한 김 교수가 합류한 셈”이라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통합의 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황식에 공 들이는 한국당

황교안 불출마에 대선 전략 차질...지도부, 영입 총력

자유한국당이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불출마로 조기 대선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가운데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한국당 대선 잠룡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를 넘긴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내 주자들만으로는 대선 레이스에 미풍도 일으키기 힘든 현실에 따라 한국당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16일까

지로 하루 연장하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 영입을 위한 막바지 설득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총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호남(장성) 출신인 데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장과 총리를 지내 진박(친박근혜)계와 TK(대구·경북) 색채가 강한 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임동욱기자 tuim@



2017 대선 브리핑

정운찬 “독자노선...창당 고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15일 바른정당 입당 무산과 관련, 앞으로 정당 입당 없이 독자 노선을 걷겠다며 창당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제는 독자 노선”이라며 “당을 하나 만들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창

당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 측은 전날 실무자 간 접촉에서 19일부터 진행되는 경선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바른정당 측이 이를 거부하고 오는 17일까지 입당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당 지상욱, 바른정당행

자유한국당 지상욱(서울 중구·성동을) 의원이 15일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보수의 개혁과 미래를 위해, 유승민 후

보를 돕기 위해 바른정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최선지 지 의원은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캠프에 합류하기로 했다. 지 의원은 “그냥 도우러 온 게 아니라 유 후보님을 대통령 만들러 왔다. 필요한 역할이라면 캠프 청소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빠진 3당 대선일 개헌 투표 합의

내주 초 최종안 확정...문재인·안철수 “국민 없는 개헌 NO”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15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개헌파의 입장이 아직 불분명하고 유력한 대선주자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실현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개헌을 고리로 한 반문(반문재인)연대가 형성될 경우, 향후 대선 판세를 뒤 흔들 수 있는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

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감사원 독립기구화에도 각 당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도 상당 부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3당 단일 개헌안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 작업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구체적인 단일안 내용이나 ‘대선과 동시 투표’에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당은 이날 중 자구 수정을 마치고 법제처 등에 단일안 초안을 보내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주말 소속 의원들의 회합을 거쳐 내주 초 각 당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

개헌안에는 대선 때 국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대선 후 1년 안에 국민투표를 한다’

상가 건물 매매 010-7384-7800 010-6670-9800 경매 / 투자 전문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갈끔 / 주차 완비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웅2천)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
◆ 평수 45평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

주 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3천(웅5천)

상무지구 상가매매

10층 중 6층
(23평) 코너자리

리모델링 완비/투룸 가능

보 500만 월 44만

◆ 매가 8천 300만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갈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뷰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광양 상아 아파트 매매
15평 - 12층 (전망 최고)
관왕시청 / 광양산업단지 5분
매가 3천만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를권추천



■ 동구 수기동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억여 2분
▶ 감평가 3억 → 최저가 2억1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료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 감평가 45억 → 최저가 31억



■ 남구 주월동 (상가주택)
토 50평 건 27평
장산초등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9천8백



■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86평, 건 340평
1층(상가) 2층~5층 료 총 33개
월수익 1,000만예상 / 운전역 1분
▶ 감평가 11억 → 최저가 7억8천



■ 수완지구 (1층 식당상가)
토 44평, 건 47평
수완지구 국민은행 뒤
주차 완비 / 식당 최고 자리
▶ 감평가 8억5천 → 최저가 5억9천